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확대

## 광주시에 수사개시 통보...피의자 전환될 듯 시청 2차례 · 광주도시공사 1차례 압수수색도

검찰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시에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광주시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9월 30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시에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냈다. 통보 대상은 확인해지지 않고 있으나 시청 인법에서는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광주시의회의에는 수사개시 통보서를

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이 특정된 수사개시 통보서를 소속 기관에 발송한다.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공무원은 입건되고 해당 공무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인물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며 "통보서에 피의자나 피고발인 특정이 돼 있다면 피의자 신

분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실련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와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의 이익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 이유,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등이다.

검찰은 감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 등 전 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또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로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며 "통보서에 피의자나 피고발인 특정이 돼 있다면 피의자 신

분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실련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와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의 이익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 이유,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등이다.

검찰은 감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 등 전 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또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로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며 "통보서에 피의자나 피고발인 특정이 돼 있다면 피의자 신

# 오늘부터 실업급여 최장 9개월 지급

1일부터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10%포인트(p) 오른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최대 9개월로 늘어난다.

대신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연령구분도 2단계로 단순화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도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연령구분도

## 광주 · 전남서 검거 도박 사범 5년간 9500여 명

지난 5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검거된 도박사범이 9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도박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도박사범 검거 인원은 11만2660명이며 이 가운데 광주 · 전남은 9535명(8.5%)이다.

광주에서 이 기간 도박 · 상습도박 · 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2739명이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도박 2497명(91.2%) △도박개장 185명(6.8%) △상습도박 57명(2.0%) 순이었다.

재범률은 18.4%(503명)였다. 상습도박 재범률이 33.3%로 가장 높았고, 도박개장은 24.9%, 도박은 17.5%로 집계됐다.

도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전체 검거인원의 0.8%에 불과한 22명이었다.

전남에선 지난 5년간 67%명이 도박관련 범죄로 검거됐고, 이 중 0.7%인 50명이 구속됐다.

도박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6251명(92.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도박개장 391명(5.8%), 상습도박 151명(2.3%)으로 조사됐다.

재범률은 23.5%(1598명)으로 전국평균(20.3%)을 웃돌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육군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정병들이 9월 30일 오후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의 한 도로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수도군단은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경기 김포 가현리, 초원지리 등에서 방역활동을 벌였다.

##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135명 위탁 채용...역대 최대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35개 사립학교로부터 모두 135명의 교사 채용을 위탁받아 공모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9월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사 선발을 위해 지난 2003학년도부터 위탁 선발을 시행하고 있다.

2020학년도에는 23개 법인이 22개 과목에 대해 135명(초등 2명, 중등 133명)의 교사 선발을 위탁받았다.

이는 2003년 위탁선발을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처럼 위탁채용 규모가 늘어난 것은 교육청 공모사업 시 기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법인 관계자 대상 홍보, 법인의견 적극 반영,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명한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으로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2020학년도부터는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교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사립학교에서 유능한 인재를

### 이슈 판결

## '재미 삼아' 잠자던 사람 흥기로 찌른 20대, 2심도 징역 10년 선고

법원 "피해자 극도의 충격과 고통 겪어"

단순히 재미 삼아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함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함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을 파기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8시12분쯤 전남에 있는 B씨(26)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B씨의 가슴을 흥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말쯤부터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새로운 자극으로 재미를 찾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흥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흥기를 가지고 인근 도로를 배회하던 A씨는 B씨에 집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에 들어가 흥기로 B씨를 찌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B씨는 흥기에 찌러 등맥이 손상되는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 중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A씨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행을 선택한 점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